

공간의 움직이는 표면들

사물을 지각하는 경험에는 세가지 조건이 동반된다. 실재와 그것이 외부공간에 투영되어 생겨나는 상(像),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 이 세 조건은 각기 다른 차원에 속해있으면서 거미줄 같이 얽힌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인지경험을 발생시킨다. 정정화의 작업에서는 이 세 조건들, 즉 실제 전시장의 공간과 그 공간의 복사체, 그리고 관람자의 시점 사이의 관계가 치밀한 공간 계획을 통해서 서로에게 귀속될 수 없도록 소외된다. 그것들은 마치 잘못된 순열조합처럼 시간과 공간의 순차적인 질서에서 어긋나게 배치되어 관람자의 눈과 전시장의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도미노 게임과도 같이 계속해서 재배열시킨다.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동인이 전체의 장(場)을 변화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바로 정정화의 작업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정화의 설치작업은 공간의 복사와 이동에서 출발한다. 그는 실제 공간인 전시장의 한 벽면을 거울이나 사진, 비디오 카메라로 복사해서 다른 쪽 벽면으로 이동시킨다. 금산갤러리의 외벽은 사진으로 찍혀서 갤러리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내부의 벽에 부착되고, 그 사진 위의 전시장 입구는 원근법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된 크기의 거울로 대체되어 실제의 입구를 반사하고 있다. 관람자가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미지는 방금 전에 바깥에서 보았던 전시장 외벽의 거대한 흑백사진과, 그 사진 위에서 실제의 문을 반사하고 있는 거울 속 이미지, 즉 전시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모습이다. 관람자는 거울에 반사된 자신을 보면서 이 편의 반사체로서의 저 편을 지각하게 되고, 서로 교차편집된 것 같은 복잡한 공간의 역학 속으로 초대된다. 공간 속을 이동하는 관람자의 모습은 전시장 전체에 설치된 9대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되고, 그 이미지들은 분배기를 통해서 다시 전송되어 여러 대의 모니터로 재생된다.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평면적이고 중성적인 전시장의 벽면들이 서로 복사되고 교차되었을 때, 공간들의 유사한 외양들은 실재와 반사체 혹은 복사체 사이의 위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 진위를 혼돈시킨다. 더욱이 정정화는 갤러리의 2층 공간에 금산갤러리 내부 공간을 연상시키는 소형계단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기에 사진과 거울, 비디오 카메라를 조합시킴으로써 공간들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공간의 복사, 복사된 것의 반사, 반사된 것의 재복사와 같은 복제의 연속적인 계열화는 관람자의 눈과 실재 사이에 존재하는 상(像)들을 다양하게 중첩시킴으로써 관람자를 실재와 환영 사이의 기묘한 삼각지대에 위치시킨다. 이와 같은 공간적 상황을 더욱 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뒤섞는 비디오 카메라의 이미지들이다. 9대의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는 1층과 3층의 모니터 15대 위에 분배되는데, 각각의 모니터들은 녹화된 이미지들을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교차하여 보여준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서있는 영상을 볼 때, 관람자는 현실의 불분명한 경계선을 경험한다.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이 분절화되고 뒤섞여진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비추고 있는 공간적인 단편들, 즉 복제된 시퀀스(sequence)들일 뿐이다.

이처럼 정정화의 공간은 마치 한 개의 조각을 잃어버린 퍼즐게임처럼 아무리 짜맞추려해도 연속적으로 어긋날 수 밖에 없는 부조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귀속이 없이 파생만이 반복되는, 완결을 영원히 유보시키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비선형적이며 경험적일 수 밖에 없다. 인식을 명료하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공간 속에서 관람자는 논리적인 추론이 아닌 단편적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서 전체 공간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관람자는 전시장을 돌아보는 짧은 시간 안에 공간의 뒤틀린 논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영원한 미궁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정정화의 작업은 언제나 탐색과 변화의 과정을 동반하는 현재진행형이다. 공간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인식의 이동과정 전체가 곧 그의 작업의 출발이자 귀착점이기 때문이다.

이 은 주/ 미술사